일승교 얼음물이 더욱 차도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浦團兀坐不成眠(포단올좌불성면)
寂寂孤燈壁裡懸(적적고등벽리현)
時有好風吹戶外(시유호풍취호외)
劫聞松子落庭前(겁문송자락정전)

좌복에 오뚝이 앉아 잠 못 이루고
적적한 방 등불은 벽 위에 걸렸네.
때마침 불어온 창밖의 바람
뜰 앞에 떨어지는 솔방울 소리.

제방 선원의 선객들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도다.

청규를 준수하고 대중이 화합하며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세간의 온갖 시끄러움이 저절로 멀어져 등불은 밝게 빛나고 뜰 앞에 떨어지는 솔방울 소리까지도 들리게 되었도다.

안거 법도가 원만하게 실천된 일은 크게 희유하다 할 수 있으며, 안거를 통해 삼계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안목을 구족하게 된 인연도 참으로 수승한 일이로다. 이러한 인연은 수선대중을 옹호한 후원대중과 사부대중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이니 모두를 찬탄할 만하도다.

포단에 오뚝이 앉아 잠 못 이루고 정진함은 대립과 갈등의 세계가 관용과 화합의 세계로 변하는 묘리를 찾기 위함이요, 흔들리지 않는 불빛으로 세상을 비춤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로다.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세간의 여러 인연들이 영축산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일승교 얼음물은 오늘도 차고

보경호에 드리운 영축산은 더욱 빼어나다 하리라!

見色聞聲是本心(견색문성시본심)
將金何必更求金(장금하필갱구금)
波無異水君知否(파무이수군지부)
身是全心莫外尋(신시전심막외심)

모양 보고 소리 들음 바로 본마음
황금 갖고 왜 또 금을 구하나?
물결 밖에 딴 물 없음 그대 모르는가
몸이 곧 마음이니 밖에서 찾지 마오.

결제와 해제의 구분은 없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



溪聲便是廣長舌(계성편시광장설)
山色豈非淸淨身(산색기비청정신)
夜來八萬四千偈(야래팔만사천게)
他日如何擧似人(타일여하거사인)
"시냇물 소리가 곧 오묘한 법문이니, 산속 풍광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밤새 설한 이 팔만사천 게송들, 다른 이에게 나중에 어찌 들려줄 수 있으리."

오늘 삼동결제 해제일을 맞아 전국 선원과 강원, 염불원 등에서 삼동결제를 통해 용맹정진을 보여준 종도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상찬을 드립니다.

위에 들려드린 게송은 임제종 황룡파 동림상총 선사로부터 무정설법(無情說法)의 화두를 받고 참구하다 깨친 동파 거사의 게송입니다. 동파 거사의 본명은 소식(蘇軾, 1036~1101)으로 대문장가였으며 유불에 정통한 대학자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황주성 밖의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지은 '적벽부'(赤壁賦)이니 스승으로부터 받은 불교의 깨달음이 글로 흘러 넘쳐 나온 것입니다. 변화와 불변의 경계조차 자유로이 가로지르며 초월적 경지조차 초월한 그에게 세간과 출세간의 분별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비록 삼동결제 해제일이나 본래 수행에 결제와 해제의 구분이 본래 없고,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으며, 유정과 무정법문이 따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 이전의 한 소식은 천성(千聖)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망상을 초월하고 사견에서 벗어나야 최상승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취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얻지 못하는 도리를 알아 진실로 얻지 못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若人欲識西來意(약인욕식서래의)
颯颯松風長擧示(삽삽송풍장거시)
만약 사람들이 서쪽에서 온 뜻을 알고 싶다면
솔솔 부는 솔바람이 바로 그것인 줄 알라.

무정설법의 경지를 일러주는 게송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을 염호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타파할 때 절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견해가 생기고, 통찰의 경계로서 심지법(心地法)을 보는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심지가 활짝 열릴 때 유정과 무정이 하나 되고 따로이 세간과 출세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해제의 도리를 아는 자가 오늘 산문 밖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일러주는 무정설법을 그대들에게 전하니 그대들은 천성이 전하지 못한 도리를 깨달아 큰 소리로 세상에 일러 보시기 바랍니다. 亨!

"버드나무꽃 따고 버드나무꽃 땀이여"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陞座拄杖三下云 會麽?
卽下契合得頓悟 疑團消却出三界
身放毫光照天地 孤雲野鶴阿呵呵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고 이르대,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계합하여 몰록 깨달아 얻는다면
의심 뭉치가 녹아 없어져서 삼계를 뛰어나리라
몸에서 백호광을 놓아 천지를 비추니
외로운 구름과 들에 학이 껄껄 웃음이로다

喝하시고

금일 解制 大衆은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다 할진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四面이 문이 없고 시방이 막힌 벽이 없음이라.

더벅머리에 초생달 같은 귀라. 누구나 다 남아대장부인데 어찌하여 노끈이 없는데 스스로 자신을 얽어 잡아매는가? 그렇다면 벗어나는 一句는 어떠한가?

良久 云

蹈破草鞋赤腳走로다

짚신을 밟아 부수고 맨발로 달아남이로다.

금일 해제를 맞이한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趙州스님 회상에서 있었던 일화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스님 회상에서 해제날 공부납자가 조주스님께 인사말씀을 드리자

조주스님께서 "어디로 가는고?"하고 물으시니

공부납자 스님이 대답하기를 "제방에 불법을 배우려고 나가볼까 합니다."

조주스님께서 불자를 세워 보이고 말씀하시대, "부처가 있는 곳을 가거든 머무르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을 가거든 급히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 이르러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되이 드러내지 말게."

그러자 납자가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조주스님께서 "적양화 적양화(摘楊花 摘楊花), 버드나무꽃을 따고 버드나무꽃을 땄다"라고 하셨다.

訥堂思 頌曰
摘楊花摘楊花 打鼓弄琵琶
昨日栽茄子 今日種冬瓜로다

눌당사스님이 게송을 붙이셨다.
버드나무꽃을 따고 버드나무꽃을 땀이여
북을 치고 비파를 탐이라
어제는 가지를 심고 오늘은 단참외를 심음이라

금일 대중께서 적양화 의지를 한번 일러 보십시오.

금일 산승에게 적양화 의지를 묻는다면 "금강은 섬돌 아래에 걸터앉아 있는데,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불 속을 달립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안은 아주 고준한 공안이라 지난날 큰스님들이 거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해제를 하고 대각사에 고암큰스님을 뵙고 이 공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적양화 의지를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했더니 고암 큰스님께서 답하시길 "眼中瞳人著繡靴(눈가운데 동자사람이 수놓은 신을 신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느 큰스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일구였습니다.

동안거 동안 정진 대중께서 본참공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해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용맹정진하셔서 각자 참구하는 화두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然雖如是나 본참공안에서 확철대오만을 인정하지 餘他는 半箇도 不許用이라. 何故냐?

富嫌千口少 貧恨一身多로다

부자는 천 사람의 입도 적다고 원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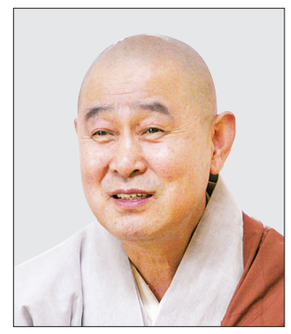
가난한 사람은 한 몸도 많다고 한탄함이로다

喝하시고

拄杖三下 下座하시다.

진여 자성은 허공과 같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오늘은 을사년 동안거 해제 날입니다.

동안거 3개월 동안 참다운 진여 자성을 확철하게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좌복위에서 뼈를 깎는 정진을 해서 모두가 해탈해서 자유인이 되는 날입니다. .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야 선원 포단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아무도

나 자신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신 대사가 승찬 대사를 찾아간 것은 13세의 사미 시절이었다.

큰 스님 자비를 베풀어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소서,

인생살이가 힘이 듭니다. 제 앞길을 막힘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 주소서,

누가 너를 속박하였기에 해탈하고자 하는가!

누가 나를 묶어 놓았는가!

열심히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묶어 놓았나를 찾아보아도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은 없구나.

나를 묶어놓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큰스님! 나를 묶어놓은 것은 저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사미는 이제까지 가졌던 온갖 의심을 타파하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동안거 석 달 동안 화두 일여 속에서 확철하게 깨달아서

의심 덩어리가 풀리게 되면 머물고 행하는 곳 그대로 무심이 됩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의심 덩어리를 해결한 눈 밝은 납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각을 하는 해제 동안에도 자신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거가 끝난 대중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대중을 제도하기 위하여 둘이 같이 다니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진리를 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도록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虛空無內外 허공무내외
心法亦如此 심법역여차
若了虛空故 약요허공고
是達眞如理 시달진여리
허공이 안과 밖이 없듯이
심법 또한 이와 같도다.
만약 허공을 요달하고자 하면
이것이 곧 진여의 이치를 요달함이라.

마음을 허공과 비교해 보라,

허공은 텅 비어서 우주에 충만한 것이다. 형체가 없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허공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허공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다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허공을 제대로 답한 것은 아니다. 허공을 아는 사람은 눈을 껌벅이고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허공이 형체가 없는 것처럼 마음도 또한 형체가 없는 것이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 아는 것이다.

텅 빈 허공의 이치는 곧 마음과 같아서 허공의 이치를 통달해 알면 마음의 이치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 마음은 맑고 여여하다. 일용생활이 가식도 꾸밈도 없이 여여하다면 따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안개가 자욱하면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나면 푸른 청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무명의 업장이 사라지면 그대로 파란 하늘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眞理本無名 진리본무명
因名顯眞理 인명현진리
受得眞實法 수득진실법
非眞亦非僞 비진역비위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다.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드러내니
진실한 법을 깨닫고 나면
참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

진여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어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아무개 하는 이름도 갖다가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름뿐이지 그렇다고 그 이름이 깨달음에 본 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여 자성은 허공과 같고
진여 자성은 맑고 청정해서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구나!

2월 12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종단 종정예하를 비롯한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